



C&H A.M
Come & Help Arab Muslims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걷는 길

WITH ARAB MUSLIMS

OCT. 2015
VOL. 02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010-8730-8624

사진설명: 요르단 사해

영원한 나라로의 초대 !

신 현 목사 (C&H A.M 이사, 강은교회 담임)



최근 터키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시리아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난민 문제가 지구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고국을 떠나 생존을 위한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나라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봄을 받고, 미래를 그리며 현재를 살아갈 나라가 부재한 고통이다. 그들에게는 가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다. 그들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거주할 땅도 없다. 난민들은 망명하여 다른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주변국들은 이방인 난민의 요청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럽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창조하였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선포하신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였다. 예수께서는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교훈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내어 주셨다. 그렇게 이루신 구속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인 ‘왕, 백성, 영토’ 가 드러난다.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왕 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가 창조하신 영토가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나라 안에서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 오셔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영적 난민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영적인 난민이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의 영역으로 창조하신 땅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해 영적인 난민이었다. 다행히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갑게 영접하시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영적 난민이었던 우리를 그 나라의 복된 구성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C&H A.M 선교회는 지구촌에서 고통하며 서러워하는 모든 난민들에게 세상 나라보다 좋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며 권한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든든한 일인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우리의 왕을 높이며 찬양하라!

영적 난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로 오라!

‘다름’의 존중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김현성 선교사 (C&H A.M 대표/ 중동 J국 사역)



중동에서 비자 연장을 할 때 마다 겪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비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내용은 이렇다. 이곳에서는 보통 비자 신청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2주 후에 결과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2주 후에 가 보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다. 그런데 3일 후는 공휴일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오히려 짜증을 내기가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후에 다시 방문해 보는 것 뿐이다. 비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방문해 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쉽게 적응되지 않는 여간 힘든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시간 관념에 관한 중동 아랍 문화의 단편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관공서에서 초차 시간에 대해 철저하지 않다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어떠할지 상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속한 무리나 자신의 생활권 내의 문화를 ‘자문화’(自文化), 타인이나 외부 또는 외국의 문화를 ‘타문화’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타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켜 ‘타문화권’이라 한다. 자신의 문화권 내에 거주하면서도 대체로 그 문화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새롭고 낯선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문화권에 속한 한 사람들이 다르게 산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의복, 음식, 언어, 행동의 차이를 보다가, 이어서 감정이나 믿음,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종국에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타문화권에서 발견되어지는 차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문화와의 충돌이 일어남을 느끼고, 익숙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화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중동 아랍 문화를 경험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아랍 문화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된 자들 뿐 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랍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을 중시하는 단체주의(Collectivism) 문화이다.

단체주의 문화는 가문과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형태로 존재하며 각 집단에는 뚜렷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각 집단의 결정이 개인의 의견보다 중시되는 문화이다. 현대에는 사회가 도시화가 되면서 지리적 혹은 공간적 공동체의 의미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가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집단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집단을 중시하기에 그들에게 가장 중시되는 것이 바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다. 명예와 체면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어떠한 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단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이나 차별성에 관대하지 않다. 마스크의 발달로 서양의 모습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옳고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면을 발견하면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해 버리곤 한다.

둘째, 수직 구조(High Power Distance)이다.

한국도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듯이 아랍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나이가 우선시 되고, 직책이나 직위가 우선시 되는 구조로 개인의 의견 보다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형태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적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 처음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한국인인 내가 상당히 어려 보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맞아준다. 그런데 내 나이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부담감을 갖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삼촌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때로는 캠퍼스 전도에 있어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나이로 인해 존중을 받기에 이점도 되기도 한다.

셋째, 사람 중심, 관계 중심(Polychronic)의 문화이다.

중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느낄 수 있는 문화인데 아랍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중동에서는 사람들과 시간 약속을 할 때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대인관계는 대부분 일보다 사람중심으로 이루어 지기에 늘 여유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오후에 만납시다.’ 라고 하면 정확히 오후 몇 시인지 궁금해 질 것이다. 하지만 아랍 사람들에게는 오후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형성되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이슬람과 융합된 문화이다.

아랍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가지 더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이다. 아랍 문화 속에 이슬람이 어떻게 스며들어와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아랍 무슬림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동에서 살아가는 아랍 기독교인들과 아랍 무슬림들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같은 아랍이라도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랍 무슬림 대상 사역자들은 아랍어 습득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아랍 무슬림들의 주 생활 무대인 중동에서도 국가적, 지역적,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의 토착화된 생활 습관과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랍 지역의 문화가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랍 문화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랍 문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다소 멀다 해도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이기에 그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면 어느 문화권이나 서로 비슷한 점을 조금씩은 발견할 수 있다.

아랍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라면 아랍의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베어 나올 정도로 습득하고 연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에 그 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랍 문화권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때론 그것을 얻기 위해 내게 익숙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강조는 아랍 무슬림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무슬림들의 삶을 전적으로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 옳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외국인으로 인식 될 것이다. 비록 본인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아랍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중동에 있는 사역자들이라면 아랍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무슬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 문화를 배우시며, 그 문화 속에서 유대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명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종종 주위의 아랍 무슬림들에게 ‘아랍사람 같다’ 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만큼 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아랍 문화는 쉽지 않으며 여전히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문화 속에 내 자신을 던져 그 속에서 허우적 거리며 살아가다보니 이들과의 삶의 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타문화가 가져다 주는 낯설과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한 이해와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랍 문화, 또 그 외의 어떠한 타문화에도 익숙해 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랍 무슬림 전도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을 존중함으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야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랍 무슬림들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정연심 (C&H A.M 스텝/ 회원관리 담당)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요르단 북동쪽 마프락 지역엔 2012년 시리아 난민을 위한 자파리 난민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발발한 내전으로 2015년 현재 약 20%이상의 시리아 국민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가와 유럽을 방황하고 있는데, 자파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약 10 만 명이 거주하는 이 난민캠프는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서 관리하는 4년차의 안정된 캠프로, 저는 한국 단체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보건의사, 태권도, 핸드벨 수업 등을 보조하며 2014년 한 해 동안 지냈습니다.

처음 캠프에 들어갈 때의 삼엄하던 분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UNHCR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은 2단계로 이루어진 검문소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모든 사람의 허가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변 안전과 선교 보안에 대해 수없이 들었던 내용을 기억시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이 때문에 현지 교관님은 자파리 캠프를 '보이지 않는 감옥' 이라 표현했습니다.

소망을 잃은 부모 세대, 미래를 잃은 자녀 세대

자파리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시리아 땅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자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파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리아를 그리워하며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폐허가 되어버린 시리아, 그들이 살았던 마을과 무너져버린 집들의 사진을 보며 희망이 없음을 탄탄합니다.

그곳 아이들의 삶은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시리아를 탈출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경험한 전쟁과 죽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우울, 불안, 폭력의 성향을 보입니다. 자파리 거리를 다니다보면 아이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방문자들이 구경거리마냥 사진 촬영을 하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대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카메라를 부숴뜨리기도 합니다. 캠프 내에 학교가 있지만 6만 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3교대로 학교를 가고,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던 아카데미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다릅니다. 캠프 특성상 직접 전도를 못하지만 그들은 저희가 기독교인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인인 그들은 저희를 가족이라 불러줍니다. 여전히 자신이 처한 삶에서 '알라' 를 찾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제가 그곳에 온 이유를 물으며 저의 신앙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나00는 제가 그곳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기도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철저히 귀한교육을 시키는 가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기독교인인 저희에게 시리아의 가족과 같은 한국의 가족이라 표현하며, "너희에게 아이들의 장래를 맡기고 싶다." 고 했던 것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처음엔 여느 방문객처럼 광활한 캠프에 펼쳐진 텐트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관계가 쌓이면서 텐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태권도 아카데미 무슬림 학생이었던 했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말로 예수님을 전하진 못했지만 자파리에서 그들의 텐트로 들어가 지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 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제 마음이 애잔하고 안타깝고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전 떠났지만 여전히 그곳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은 진행 중입니다.



이슬람의 희생제

최미화 (C&H A.M 스텝/ 리서치 담당)

이슬람에는 일년에 두번 중요한 축제가 있는데 라마단과 희생제가 바로 그것이다. 두 축제 모두 꾸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종교적 행사로 이 글에서는 희생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희생제(Eid Al-Adha)는 이슬람력으로 12월 8~10일로, 메카 성지순례가 끝나고 열리는 이슬람 최대 명절이며 대제 또는 희생제로 불린다. 이 희생제는 라마단 종료 후 열리는 아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와 더불어 무슬림들의 양대 축제로, 아이드 알 피트르는 작은 축제(Small Biram), 아이드 알 아드하는 큰 축제(Big Biram)로 불린다. 아랍어로 희생제는 아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로 불리는데, “아이드”는 명절이라는 뜻이며 “알 아드하”는 “가축 도살, 희생물 헌납”이라는 뜻으로 희생제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날은 우리 나라의 추석 명절처럼 온 가족이 다같이 모여, 가족 친지들을 찾아 뵙고 안부를 묻는 무슬림들의 큰 명절이기도하다.

희생제의 유래, 이스마엘? 이삭?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이 축제의 유래는 이렇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약속한 대로 알라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알라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지막 순간 숫양 한마리를 가져다 주고, 그 양을 아들을 대신해 제물로 바친다.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아들의 이름이 코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슬람에서는 그를 이스마엘로 보며, 외아들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 완벽한 순종을 보고 그 보상으로 이삭을 허락하였다고 여긴다.(꾸란 37장 100-107절 참조)

피 비린내 가득한 동물제사의 축제

이러한 전설에 따라 축제에서는 동물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함께 돈을 모아 양이나 소를 구입하여 잡을 수 있다. 희생제가 시작되고, 동물들의 도살이 시작되면 무슬림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살 현장에 데리고 와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종교교육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꾸란에 명시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잡는다. 양이든 소든 항상 목을 반쯤 잘라 동물 스스로 죽게끔 한다. 피가 다 빠지고 죽게 된 동물의 다리 한쪽에 펌프질을 해 공기를 주입시켜 양의 몸을 팽팽하게 만들고 동ung으로 두들겨서 가죽과 살이 잘 분리되도록 한다.

이러한 희생제의 기간에는 동네의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음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선행을 통해 알라 앞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제물로 바친 그 고기의 1/3은 자신이 먹고, 2/3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며, 이 고기는 신의 것으로 여기어 절대 팔거나 사지 못한다.

단 한번의 영원한 피흘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이슬람의 희생제를 통해 무슬림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으로 아무런 의미없이 동물들만 도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결코 헛된 피흘림이 아니었음을 믿으며, 단 한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슬림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C&H A.M Mission

소식 및 기도 나눔

김샘의 이슬람 TIP

1) 선교회 소식

+ 본 선교회에서는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도 기도 팀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동역할 분들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해정 전도사가 선교회의 총무로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회와 관련한 모든 국내에서의 업무를 총괄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현지인 사역자가 운영하는 NGO(The Center of Mercy)와 새로운 동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와 함께 하는 협력사역을 통해 무슬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도해 주십시오.

+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2) 중동을 위한 기도제목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중동의 많은 영혼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전들이 속히 종식되어 난민사태가 해결되고 중동 땅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유럽지역으로 퍼져가는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IS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가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따뜻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6월 후원자)

_이사후원

김만석 박진선(*2) 박형진 신일수 윤동희 이호석 장홍모 손병규

_일반후원

김현성 노윤태 명유정 박희선 이윤이 이영배 임지아 장시훈 전병천 최윤석

7월 후원자)

_이사후원

김만석 김석한 박진선 박형진 이호석 손병규 신일수 윤동희 장홍모 최윤석

_일반후원

김현성 노윤태 명유정 박희선 이슬기 이윤이 이영배 임지아 이숙영 최복동 하승연

8월 후원자)

_이사후원

김만석 김석한 박진선 박진우(5-7월분) 박형진 윤동희 이호석 장홍모 손병규

_일반후원

김현성 노윤태 박희선 이윤이 이영배 이회진 임지아 이숙영 최복동 하승연

C&H 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 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 무 : 박형진 목사(햇빛트리니티신대원)
 서 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처치)
 감 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 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종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발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종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임블던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C&H A.M 스텝

대표 : 김현성
 총무 : 강해정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리서치 : 최미화
 미디어 : 손미정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 + 1 + 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물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 예금주: 김현성(C&H A.M MISSION)

-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대한 영수증,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장기선교사
훈련모집

장소 : 요르단

기간 : 2년

절차 : 서류 전형/ 사전 인터뷰/ 현장 리서치(약 2주)/ 최종 인터뷰/ 훈련 참여

* 훈련 참여가 결정 되면 이사회를 거쳐 본 단체 파송 선교사로 허입 됩니다.



C&H A.M
 Come & Help Arab Muslims

C&H A.M 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구호 아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단체입니다.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2-92058

선교회 연락처 | 010-8730-8624 (강해정 총무)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